“태극마크 내려놨지만 아이들 꿈 계속 응원”

유현준 ‘기품장어’ 대표

삼보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서 메달
협회 문제로 은퇴 후 외식업 도전
건설현장서 땀 흘려 창업 자금 마련
매월 지역아동 50명 식사·물품 지원

“어린 시절에는 힘들게 자랐지만, 이제는 제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어 기쁩니다.”

삼보 국가대표에서 외식업 사업가로 변신한 유현준(28·사진) 기품장어 대표는 최근 나눔을 시작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지구와 서구 상무지구에서 장어 전문점을 운영하는 그는 지역 아동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함평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유 대표는 초등학생 때 러시아 전통 무술인 ‘삼보’를 접한 뒤 중·고교 시절 사설 체육관에서 훈련하며 선수의 꿈을 키웠다.

유 대표는 “삼보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학교 운동부가 아닌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해야 했다”며 “고등학생 때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도 목에 걸었다”고 회상했다.

국제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진학했지만, 2018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중 대한삼보연맹이 대한체육회 가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 선수단의 출전이 무산되자 선수 생활을 접었다.



유 대표는 “당시 협회가 두 곳으로 나뉘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운동을 그만둔 뒤에는 밑에서부터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전했다.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밤에는 다른 일터에서 일하며 창업 자금을 모은 유 대표는 여러 업종에서 사업 경험을 쌓아 2023년 10월 기품장어 첨단점을 열었으며, 올해 4월에는 상무점까지 확장했다.

그는 “함평에는 장어 양식장이 많아 어릴 때 양식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며 “그 경험을 살려 고향의 명물인 장어로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에 창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자리를 잡자 유 대표의 시선은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향했다.

그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올해 연간 5천200만원 상당의 후원을 약정하고 매월 두 차례 지역아동센터 아동 총 50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KIA 타이거즈 포스트시즌 기간 팬클럽 ‘KIA Tigers Fan Team’과 함께 야구장을 찾은 관중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경기 후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유 대표는 “어릴 때 시골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많았던 기억이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야구 단체관람 기회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광주매일신문, ‘쇼츠가 여론을 바꾼다’ 사내연수

광주매일신문은 10일 본사 교육실에서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김형주 아데라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강사로 나서 ‘뉴스 소비의 변화, 쇼츠가 여론을 바꾼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대표는 먼저 레거시 미디어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전통적 방식과 개인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는 현재의 방식을 비교했다.

이어 “같은 유튜브를 매일같이 봐도 어떤 주제의 영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알고리즘이 형성돼 각자 보는 뉴스가 다르다”며 “가장 흔히 뉴스를 접하는 방식인 ‘추천 피드’는 지금까지 데스크가 통제하던 신문 1면과는 다르다”고 구분했다.

그는 “콘텐츠를 확산시켜 언론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뉴스를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고, 기자의 경쟁력은 속도가 아닌 검증과 책임에 있다”고 공익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뉴스를 만나는 방식은 달라졌다. 쇼츠는 뉴스 소비와 여론 형성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좋은 쇼츠는 긴 기사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닌 독자가 궁금해할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적십자사-동신대 군사학과, 헌혈문화 확산 ‘맞손’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혈액원은 10일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동신대학교 나래관에서 동신대 군사학과와 헌혈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생명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미래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과의 교육 이념과 연계해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방침이다.

류태웅 동신대 군사학과장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기에 앞서 이웃에게 피를 나누는 헌혈이야말로 숭고한 봉사와 희생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지속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성 전남광주혈액원장은 “헌혈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나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실천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상 기자

담양소방 ‘제64주년 소방의날’ 행사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소방서는 10일 “전날 담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수상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소방의 역할과 책임 다짐을 통해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소방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기념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 기념사·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소 소방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온 지역 언론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지역 내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소방 공무원과



민간인 유공자들이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박춘천 담양소방서장은 “소방의 날을 맞아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며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해군 3함대 ‘광주함’ 항해 체험 행사 호응

목포해양대 등 인근 8개교 학생 견학

해군 제3함대사령부(3함대)는 10일 “최근 목포해양대학교와 문태고등학교, 제일중학교 등 부대 인근 8개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함정 항해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남광주 지역 학생들에게 해군 함정의 항해 현장을 선보이고 해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3함대 소속 2천500t급 호위함인 ‘광주함(FFG-1)’에 승함해 목포항 일대 해상을 항해했다.

이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함정 운용 환경을 둘러보고 직무별 장병들의 임무를 가까이서 확인하며 해양 수호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특히 광주함 격납고에서는 해군 모병관들이 홍보 부스를 꾸리고 안내 팸플릿 배부와 함께 1대1 맞춤형 진로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문태고 1학년 김동하 학생은 “멀리서 보던 군함을 타고 바다를 누비니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장병들이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키는지 알게 됐고 해군이라는 직업에도 큰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인수 광주함장(중령)은 “항해 체험이 학생들이 해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다양한 안보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광주교육청·광주회생법원, 금융교육 활성화 협약

교직원·학부모 개인회생·파산 법률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0일 광주청사 상황실에서 광주회생법원과 교직원·학부모 법률 지원 및 학생 경제·금융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 관념과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직원·학부모 대상 개인회생·파산 절차 안내·상담 연계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운영 ▲회생법원 재기지원제도 홍보·안내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돕고 학생들의 경제·금융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광주회생법원과 협력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 관념과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경제·금융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목포해경, 표류자 9명 구조 김재온 선장에 감사장

지난달 차귀도 해상 전복 어선 선원 구출

보온 조치 등 응급구조 후 관계기관 인계

목포해양경찰서는 10일 “최근 최원식 목포해양경찰서장이 북항파출소를 방문해 목포 선적 황금호 김재온(37·사진 가운데) 선장에게 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선장는 지난 10월5일 오전 3시4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전복된 경남 사천 선적 제7성진호 선원 9명을 구조했다.

당시 새벽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김 선장은 긴급 구조 상황을 접하자 지체 없이 조업을 중단하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바다에서 표류하던 제7성진호 선원 9명은 현장에 도착한 김 선장과 황금호 선원들의 수색 덕에 차례로 배 위로 끌어 올려졌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선원들에게 보



온 조치 등 응급구호를 실시한 뒤 당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한림항까지 무사히 이송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

최원식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업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신속히 뱃머리를 돌려 귀중한 생명을 살려낸 김 선장의 결단과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온 선장은 “어두운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고 바다에 나서는 어민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5·18유족회-조선대, 오월정신 계승 맞손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0일 “이날 조선대학교와 오월정신 계승 및 민주·인권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주시민·인권·5·18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교육 콘텐츠와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교류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5·18정신이 미래 세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용연학교, 독거가구 사랑의 연탄 300장 전달

광주 용연학교 학생들이 10일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에 연탄 300장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용연학교 특색사업인 ‘행복나눔 곳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는 12월에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통해 제작한 공예품과 작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김희성 용연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담양군, 학생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10일 “전날 금성중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권리교육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결혼

▲조재룡(전, 담양친목회장)·심은효씨 장남 창국(북광주농협 근무)군, 권성문·손혜자씨 장녀 미연양=11월21일(토) 오후 6시, 광주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 287 062-710-4000, 010-3741-3110.

▲故이인식·장순녀씨 아들 창현군, 나종일(담양 가마골야생화 대표)·김옥녀씨 딸 은희양=21일(토) 오후 3시 충북 제천시 더그랜드컨벤션센터 1층 엘리제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50-10번지.043-652-3000, 010-9940-3063.

부음

▲박진성(향년 91세)씨 별세, 박상옥(전 국가인권위원회)·박용준(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부친상, 김진수(광주매일신문 서울취재본부장)씨 빙부상, 김성빈(남도일보 정치부 기자)·김기린(DS단석 법무팀 변호사)외조부상 = 입관 11일 오전 11시,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